韓불교학 위상 높일 국제대회 '눈길'

불교학술단체들 2020년 주요 일정은

세계불교학회 · 불교논리학회 대형 국제학술대회 잇달아
초기불교 붐 · 종교간 대화 등 주제 학술대회들 개최 예정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지난 2002년 리스본에서 열린 세계불교학회 학술대회의 모습. 올해 8월에는 서울대에서 세계불교학회 학술대회가 개최된다. '세계불교학 올림픽' 이라고 불리는 세계불교학회 학술대회가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자년 새해가 밝았다. 주요 불교학 단체들도 새해를 맞아 한해 사업을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무엇보다 오는 8월로 예정된 세계불교학회 등 국제학술대회들은 한국불교학의 위상을 높일 대회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한국사회 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주제의 학술대회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사)한국불교학회(회장 김성철)는 운영하고 있는 학술상들을 차질없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오는 3월 27일에는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성운학술상 시상식과 '자유주제' 의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국불교학회가 추진하고 있는 '탄허강설전집' 발간 사업의 첫 결과물도 나온다. '탄허강설전집' 발간 사업은 탄허 스님의 강의와 법문 녹음파일들을 녹취 · 윤문해 책으로 펴내는 사업으로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이에 대한 첫 책이 올해 초 발간되며, 오는 5월 30일 관련 기념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한암 · 탄허학술상 시상식은 11월 20일에 열린다. 짝수해인 올해에는 한암학술상이 시상된다.

오는 5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김성철 한국불교학회장의 후임 인선은 3월 27일 열린 춘계학술대회 이후 진행될 총회서 이뤄질 예정이다.

불교학연구회(회장 임승택)는 다양한 학술활동을 예고했다. 임승택 불교학연구회장의 신년사에 따르면 5월 중 '가족 · 커뮤니티' 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며, 6월에는 '종단 개혁에서 발생한 상처와 치유방안' 을 주제로 여름 워크숍을 연다. 또한 추계학술대회에서는 한국불교계에서 두드러진 '초기불교 붐 현상' 을 학술적으로 진단할 예정이다.

또한 연례행사인 신진학자들에게 발표의 장을 제공하는 논문발표회(3 · 9월)와 지역 대학 연구소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인문학 강좌(4 · 10월)도 마련된다.

불교학연구회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법인화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21세기불교포럼' 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될 법인은 △무진국제학술상 집행 △학술단체 지원 △대중강좌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올해 불교학계의 최대 이벤트는 8월에 집중돼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지난 2017년 서울대가 한국 최초로 유치한 세계불교학회(IABS) 학술대회다.

1976년 창립된 세계불교학회는 유럽, 북미, 아시아의 주요 불교학자들이 참여하는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불교학 학술단체로 7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오는 8월 16부터 21일까지 서울대에서 열리는 세계불교학회 학술대회에는 500여 명에 달하는 국내외 불교학자들이 참석하며, 전통 불교학(문헌학)부터 명상 · 사회문제 · 윤리학까지 다양한 주제의 논문들이 발표된다.

참여하는 주요 해외 학자로는 폴 해리슨(스탠포드), 재클린 스톤(프린스턴), 제임스 롭슨 · 김진아(하버드), 아키라 사이토(도쿄대), 하루나가 아이작슨(함부르크대), 로타르 레데로제(하이델베르크대) 등이다.

동국대가 주최하는 국제불교인식논리학회 제6회 학술대회도 주목할 만하다. 오는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부산 신라스테이에서 열리는 대회에는 세계 20개국 50여 명의 발표자를 비롯해 150여 명의 국내외 학자가 참여한다.

학술대회에서는 불교존재론, 인식론, 논리학을 중심으로 대소승 학파의 교설과 브라만교, 자이나교 등 인접 종교철학을 함께 다룰 예정이다.

지난해 창립 20주년을 맞은 불교계 대표 학술계간지 **〈불교평론〉**도 다양한 특집과 학술행사를 준비 중이다.

만해축전 일환으로 진행되는 가을학술대회에서는 한국사회 갈등을 불교적 관점에서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여름 특집으로는 한국사회 내 종교 간 대화를 다룰 계획이다.

동국대-상해중의약대 교류협정 체결

1월 6일 체결식… 교육 · 연구 교류 추진

동국대와 중국 상해중의약대학이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법산 스님은 1월 6일 중국 상해중의약대학교를 방문해 양교 간 교육 및 연구영역에 대한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교류 분야는 △학부생 및 연구생 교류 △교원 및 연구원 교류 △학술자료, 출판물 및 학술정보 교환 △공동연구 및 공동 학술세미나 개최 등이다.

이날 체결식에는 동국대 측에서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법산 스님, 김동일 동국대 한의과대 학장, 박기련 법인 사무처장, 임중연 국제처장, 이형열 일산병원 행정처장 등이 참석했으며, 상해중의약대학교 측에서는 서건광 총장, 정림윤 국제교류처장, 유화 병원관리처장, 서홍매 발전기획처장, 서정 교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상해중의약대학은 1956년에 중국 최초로 설립된 중의약대학이다. 재학생수 8,000여명, 교직원수 1,300여명이며 8개 부속병원을 보유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법산 스님은 1월 6일 중국 상해중의약대학교를 방문해 양교 간 교육 및 연구영역에 대한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실담범자와 한국문화 관계 논한다

동국대 ABC사업단, 이태승 교수 초청 특강

1월 16일 충무로 영상센터서

한국불교 의례서에서 실담범자(悉曇梵字)는 다수 수록된 불교 의례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실담범자는 불교 의례의 한 축을 차지할 뿐 아니라 각종 불교 경전과 한국불교의 전통적 수행법 속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나아가 한국불교의 원형으로서 중대한 의미망을 확보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실담범자의 용례를 살피고 한국문화와의 관계를 살피는 자리가 마련된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정승석)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ABC) 사업단이 주관하는 특강이 오는 1월 16일 오후 4시 동국대 충무로영상센터 본관 227호에서 개최된다.

'실담(悉曇)자와 한국문화' 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ABC사업단 특강의 강사로는 이태승 위덕대 불교문화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이태승 교수는 실담범자 연구에 대한 선구자로 〈실담범자입문〉을 공저하기도 했다.

한자와 조선시대 한글이 불경언어로 해석되고 이해되는데 반해, 실담범자는 그 자형(字形)과 발음의 생소함으로 인해 제대로 필사되지도 읽히지도 못하고 있다.

의례서뿐만 아니라 고려대장경, 일반 불교 고서, 불복장, 불화, 와당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폰트가 개발되지 않아 의례서 전산화시 실담범자의 입력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동국대 ABC사업단은 "지난 2018년부터 한국불교 의례서를 편찬해 아카이브에 탑재하는 작업을 시작했고, 이에 실담범자 이해의 필요성을 절감해 왔다"면서 "해당 분야의 선구적인 연구를 진행해 오신 이태승 교수를 초청해 실담범자에 대한 기초적 이해와 한국적 전승에 대한 연구 성과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번 특강은 장차 불교학술원에서 모색 중인 실담범자 폰트 개발과 활용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대승기신론소 · 별기' 출간 기념 학술대회

울산대 원효학硏, 1월 18일

원효 스님을 하나의 학문 체계로서 연구하기 위한 '원효학' 전문 연구소인 울산대 원효학토대연구소가 〈대승기신론소 · 별기〉의 출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울산대 원효학토대연구소(소장 박태원)는 1월 18일 오후 2시 울산대 인문대 14호관 1층 218 계단강의실에서 '대승기신론소 · 별기 출간기념 학술대회' 를 연다.

학술대회에서는 △박태원 소장의 '이해와 마음- 원효와 붓다의 대화(1)' △정목 스님(양산 정토원)의 '원효의 깨달음과 환속' △석길암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교수의 '대승기신론을 읽어온 문헌학과 교학의 시선들' 이 발표된다.

신성민 기자

동산문화재 범위 · 기준 확대한다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 공포

미술 · 전적 분야로 확대해
부문별 해당 기준 마련도

불명확했던 일반 동산문화재 범위가 확대되고 분야별 기준도 마련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기존의 일반 동산문화재 범위 규정이 지닌 불명확성을 해소하고자 다양한 유형별 일반 동산문화재의 해당 기준을 마련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 · 공포했다"고 밝혔다.

기존 일반 동산문화재 범위 규정은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는 일반 동산문화재의 유형을 회화 · 조각 · 석조물 등으로 열거하고 있어 일반 동산문화재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다. 그로 인해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려는 동산이 일반 동산문화재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문화재청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 동산문화재가 될 수 있는 동산의 범위를 미술 · 전적(典籍) 분야 등으로 분류하고, 각 분야별 해당기준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바뀐 시행령에 따라 일반 동산문화재 해당기준은 역사적 ·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있고 상태가 양호해야 하는 등의 '공통 기준' 과 희소성 · 명확성 · 특이성 등의 '추가 기준' 으로 구성되며, 공통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서 추가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일반 동산문화재에 해당하게 된다.

이번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은 "이번 개정으로 일반 동산문화재 범위와 해당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국외 반출 제한과 관련된 국민의 불편을 한층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규제 개선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대국민 문화재서비스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